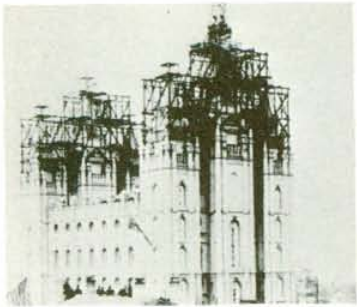


성도의 벗 3

1976





12 페이지



26 페이지



7 페이지



1 페이지

월 간 성도의 벗

제12권 제3호 1976년 3월호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앤 엘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힙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6년 3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128호

발행인겸 편집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4-6832

발행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인: 삼화인쇄 주식회사 유 건 수

순서

이야기 및 기사 페이지

- 1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앤 엘론 태너
- 4 영원한 진리의 탐구자, 카밀라 킴볼 자매님 라비나 필딩
- 9 만일 당신이 교회에 가입하시려고 결심 하신다면 마크 하트
- 12 솔트레이크 신전이 완성되기 전에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 25 참된 개심의 과정 하트만 랙터 이세

청소년 페이지

- 7 특별한 부름 에이치 버크 피터슨
- 10 누구든지 물문경을 열고 매리온 지 롬니
- 21 법은 존재한다 해리 제이 헐드만

어린이 페이지

- 13 가장 귀한 경전 모린 비처
- 15 심심풀이
- 17 산꼭대기 헤이즐 엠 톰슨
- 17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내시리이다"
- 20 숨은 그림 찾기

© 1976 재단법인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의 1년 장기 구독료는 1200원 입니다. 특집을 제외한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입니다.

장기 구독자의 주소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 입니다. 구 주소와 신 주소가 동시에 도착되지 않으면 주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의 항공 1년 장기 구독료는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이 7불, 필리핀, 태국이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가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 아시아가 18불이며 선박은 어느곳이나 3불입니다. 구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성도의 벗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인류 역사상 복음이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던져 준 때도 없었으며,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날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때도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문제와 세상적인 문제의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방황하며 전적으로 부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되기는커녕 더욱 더 속박의 상태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말일에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의지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웃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권세와 부를 늘리기 위해 이기심만을 충족시키려 하는 자가 없으며, 각자가 삶과 자유와 행복을 의롭게 추구하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 가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영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바라고 계시는 일이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976년 3월 28일은 현재 살아 계신 예언자이시며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의 81회 탄생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대업을 위해 바치신 헌신, 겸손, 선행, 생애를 통하여 보여 주신 모범에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히 그분은 베냐민 왕이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함이라”(모 2:17)라고 가르치신 대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애와 업적을 회상해 볼 때, 그분이 전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시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 주시며, 신문, 잡지, 소셜자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위대한 영향력을 잘 압니다. 그분의 말씀은 노소를 막론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대관장단 메시지



하고 식자와 무식자뿐 아니라 빈부의 차별없이 모든 자에게 전해 졌습니다. 그분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더 확고한 신앙을 가지며 영의 양식을 얻은 자들은 더욱 행복해졌고 번성했으며, 서로 더 사랑했고 존경했으며, 영원한 목표인 영생을 얻기 위해 더욱 잘 준비하게 되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때에 사랑하는 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시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1955년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가 십이사도 평의회식 일원이었을 때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개최된 영적인 모임에서 “비극과 운명”이란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비명으로 일찍 죽어 간 희생자들을 많이 내게 하고 생존자들로 하여금 주님은 왜 그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라며 질문을 던지게 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고의 실례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찍 죽는 것이 재앙 이나 파멸이나 비극이라고 한다면, 지상 생활은 영의 세계로 일찍 들어 가고 구원과 승영에 빨리 이르는 것 보다 더 나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지상 생활이 완전 한 상태라면, 죽음은 우리에게 좌절 감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은 비극이 아니며 다만 죄 안에 비극이 있을 뿐 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지식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은 제한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나이 어린 어린이가 어른의 결정 사항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부족한 지혜로 주님을 평가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행사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계획 에 따라 살아 갈 수도 있고 어리석게 도 그 계획에 따르지 않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의 운명 을 위해 계획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 을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 을 짧게 할 수 있으나 길게 할 수 있 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러한 사실 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현세에서 이해하기 어렵게 보여 지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하여 만족 을 느낄 것입니다.”

1974년 7월 10일 유타주 맨타이 중 부 스테이크 청년 그룹 모임에서 행 하신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에 귀 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가운데서는 배와 배 혹은 배 와 빙산과의 충돌 때문에 수많은 사 고가 일어나 많은 인명이 수장됩니다.

“배에 선원들에게 충돌 사고가 일 어날 것을 미리 알려 주는 레이더 장 치를 한다면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테이프로 자동 경보 장치를 하여 위 험할 때 ‘경고합니다. 이 배는 지금 어떤 물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 가 나도록 해두면 레이더 취급자가 스위치를 꺼버리지 않으면 언제나 경 보 소리는 들릴 것입니다. 이러한 경 보 소리는 배의 진로를 변경할 수 있 게 하므로 인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 다.

“나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근 본적으로 건강하고, 선하며, 진전하 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정과, 암초와, 빙산과 다른 배가 있고, 경보에 주의하지 않으면 큰 재 난을 당할 수 있는 미지의 대양을 항 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 합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젊은이들의 복 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나는 소리 높여 청소년에게 경고하고 싶 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곳에 있 으며, 여러분의 생애에서 위험한 일 이 많이 닥치는 시기에 처해 있습니 다. 여러분은 허리띠를 동여매고 마 음을 가다듬어야 이 환란을 극복하고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요15: 22) 이 말씀은 우리가 경고를 듣고 기억하여 실행한다면 함정과 암초와 위 험한 곳을 피할 수 있음을 다시 상기 시켜 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김볼 대관장님이 대관장이 되신 후 대회에서 하신 몇 가지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 다.

1974년 4월 5일 금요일 개최 모임 때, 돌아가신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 을 추모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 김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자 회견을 할 때면 으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대관장님, 교 회의 지도권을 물려받으신 대관장님 은 이제 무엇을 하실 예정입니까?’

“나는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으로

일하던 30년간 현재의 광범위하고 포 괄적인 프래그램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참여해 왔다고 대답하 곤 했습니다.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으며 다만 기존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고, 프 로그램을 공고히 하며 정책을 재확립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급속한 발전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교회 회원의 수가 배가 된 것을 보면 회원의 증가는 놀랄 만한 속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는 이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보 여야 할 점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야 한다는 사실에 있 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볼 대관장님은 어머 니의 성스러운 사명, 음란한 행위, 마약 중독, 낙태, 이혼, 가족의 유대 와 가정에서의 관리, 시민으로서의 의 무 등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리고 그분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정결하고 의로 운 중에 대담하게 수행하고 신앙 생 활을 하는 데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프로그램 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쟁취하는 길은 오직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와 비슷한 주제로 김볼 대관장님 은 1974년 4월 4일 지역 및 선교부 대 표 모임에서 아래와 같이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스테이크 선교사의 활동은 피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 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회원은 선교사 입니다’ 라고 하신 데이비드 오 맥케 이 대관장님이 설정하신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가 처음 듣는 말씀

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 일을 실행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목표를 보다 높게 설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에서 유능하고 합당한 교회의 젊은 이들이 모두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선교사의 수가 증가되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스테이크와 선교부가 자기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배출하여 그곳에 나가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선교사의 수를 덜고, 우리가 유능한 지도자를 활용하여 새로운 선교 지역의 문을 여는 사도를 도울 수 있고, 우리가 통신 위성이나 모든 미디어 즉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이용하게 되고, 발판이 될 다른 수많은 스테이크를 조직하고, 미성임자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미혼자들을 활동화시키게 될 때까지 우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권고를 계속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문을 열어 준 모든 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 나라는 승천한 예녹의 시온 성과도 같이 교육과 문화가 발전하고 신앙이 강하여지고 사랑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은 니파이 시대의 평화로웠던 200여 년과 같은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 번영이 깃들고, 백성들에게 안락과 평안이 임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실한 자세로 실천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임할 것입니다”.

총관리 역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려깊고 친절하신 대관장님은 1974년 4월 7일 연차 대회 폐회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대회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총관리 역원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은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말씀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참된 말씀입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들이 이와 똑같은 간증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보낸 참된 증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에 적용하시며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예언자들의 간증 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는 나의 간증을 더하여 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시고, 총관리 역원들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바를 이행하면 그분을 볼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으며, 그의 면전에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1974년 10월 대회에서 킴볼 대관장님은 우리의 가정과 건물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미화하는 일에 교회 모든 회원이 참여해 줄 것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위험과 유혹을 일일이 열거하신 후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느님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일의 전모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현재 이루시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가책과 고통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물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물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정 63:58 참조)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시도록 권고드

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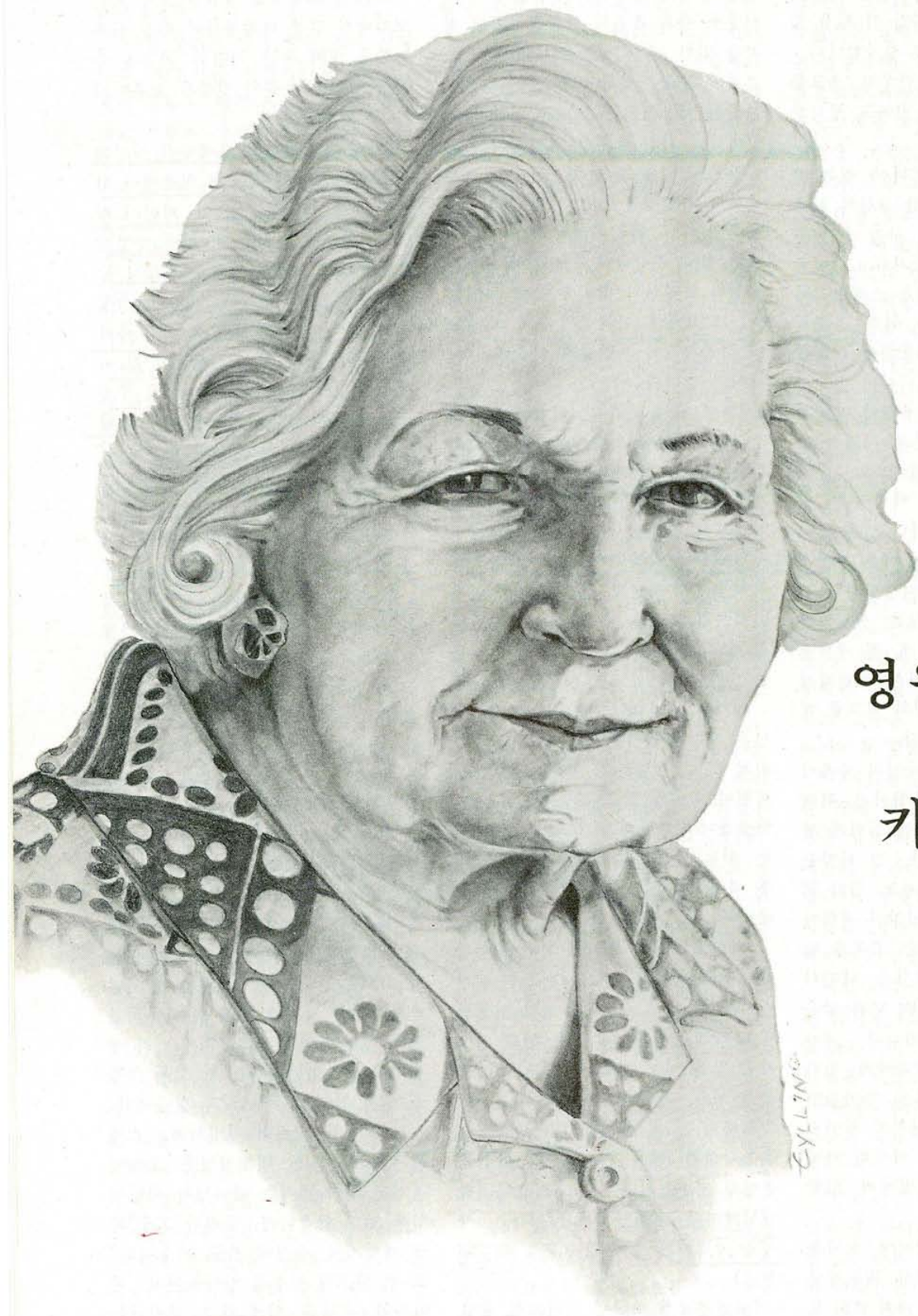
1974년 10월 6일 일요일 오후 폐회 모임에서 킴볼 대관장님이 하신 다음 말씀은 대회 동안 가정과 가족을 주제로 행한 대부분의 말씀의 결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은 특별한 경우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모두가 주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정규적으로 갖는 진지한 기도입니다. 그저 기도만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밝혀 주신다는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를 보려고 어린 자녀가 눈을 뜨고 살았다는 이야기처럼 기도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특별한 안식처이며 가정과 가족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 가정 생활, 가족 생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부모와 자녀에 관해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계획하신 방법입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나는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우리가 속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리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가르칩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주님이 주신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하고 실천한다면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실이 진실하며,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오늘날 지상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와서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 권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언자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원한 진리의
탐구자,
카밀라 김볼
자매님

라비나 필딩

자매님은 조용한 성품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러나 자매님의 조용한 성품은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수련과 침착한 태도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자매님의 머리카락은 흰색이나 재기가 넘쳐 흐르는 기쁨의 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매님의 이름은 카밀라 아이링 킴블입니다.

킴블 자매님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남편, 자녀, 손자, 손녀들이며, 교회 봉사가 자매님의 생활의 중심이 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킴블 자매님을 그와 같은 훌륭한 여성으로 만든 것은 자매님의 열성과 열의입니다. 킴블 자매님의 열성과 열의는 수십년 전부터 자매님의 생애를 배우의 생애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현재도 자매님은 아쉬워합니다. 이는 자매님이 꼭 짜여진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은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의 가정은 소박하고 청결하며 매우 아늑합니다. 거실에 있는 의자들과 식당의 식탁 둘레에 있는 의자에 놓여 있는 방석을 만든 자매님의 솜씨는 매우 훌륭합니다. 킴블 자매님은 그러한 솜씨에 대해 칭찬을 들으면 여가를 틈타 만들었을 뿐이지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겸손히 말씀하십니다. 욕심 많은 정원사 같기도 한 킴블 자매님은 온실의 화초를 잘 가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킴블 자매님의 취미는 독서입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권의 책을 주면 나는 혼자서 즐거운 시간을 마음껏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내게 소중하고 가치있는 것은 다 읽었습니다. 나는 책이라면 실증을 느끼지 않고 읽었습니다.” 킴블 자매님은 소설을 읽는 것을 나쁜 취미라고 생각한 스위스인 개종자인 할머니와 어느 여름을 보낸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 카밀라는 저녁 식사 후 바로 이층으로 올라가면, 할머니가 계단을 딛고 이층으로 올라오시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독서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층에 다 올라오셨을 때면 카밀라는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가 정원을 가꾸기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시면 카밀라는 아침 식사 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애야, 나는 네가 왜 그렇게 늦잠을 자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라고 못마땅해 하시던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가족의 만발인 카밀라는 그녀의 어머니의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층에 올라가 잠자리를 준비하라고 명하시면, 그때야말로 독서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카밀라야, 아직 잠자리를 준비하지 않았느냐?’ 라고 어머니가 부르실 때면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피아노를 치시지만, 킴블 자매님은 부모님이 마련해 준 오르간 연습을 통하여 음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킴블 자매님은 언제나 악보대 옆에 책을 놓아두고 “어머니가 만족할 정도로 연습하고는 틈을 내어 독서를 했기 때문입니다.”

킴블 자매님은 자신의 독서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의 손에서 책이 떨어진 때가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이는 킴블 자매님이 그녀의 모친이 온 가족을 위해 양말을 짜면서 독서를 한 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킴블 자매님의 독서열은 대단하였으나 가치없는 책은 절대로 읽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장 고심한 일의 하나는 나의 큰 아들에게 만화책을 읽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가능한 한 빨리 그에게 독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

하여 그는 다섯 살 때 스스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킴블 자매님에게 독서 자유가 주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매님에게 복음의 원리를 공부하도록 자유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진화론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을 듣고 매우 흥미를 느끼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이론이 있으면 진리도 있단다. 만약 네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면, 너는 진리를 토대로 이론을 알게 될 것이다.’

“부친은 조금 지나친 반응을 보이거나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나의 그러한 태도를 나의 행동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대학 전공 과목은 영양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영양학에 관한 이론이 하나로 지속되지 않고 많이 변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마침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킴블 자매님의 가족은 탐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킴블 자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마음속에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확인하고 의문나는 것을 연구하여 알아내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일찍부터 내가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복음 교리에 관한 의문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여 연구하고 기도하며, 문제를 꼼꼼히 생각하니, 하나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머지 해답을 얻기 위해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생애에서 더 많은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킴블 자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킴블 자매님은 의문의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경험 하나를 경건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킴블 자매님은 템플 스케이에서 안내자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교사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나가려고 옷을 입고 있었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몹시 고민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지만, 집을 나올 때까지 그러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에 여러 차례 간증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날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일어났을 때 나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나는 영의 증거를 받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의문을 말끔히 씻어 주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진실로 알기를 원하면 받으리라 약속된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그 전에 이러한 의문을 결코 가져보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나의 간증은 내가 살아 있는 것과 같이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문과 해답은 같은 날에 오고야 말았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수 년이 지난 부인이었습니다.” 킴블 자매님은 학

생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식을 쌓아 나갔습니다. 와드에서 지난 20년 동안 상호부조회 영적인 생활 교사로서 킴볼 자매님은 매년 자매님들에게 지정된 표준 결정을 완독하도록 목표를 제시해 주고는 목표를 달성한 자매님들과 즐겁게 오찬을 나누기도 합니다. 72명이 1년 동안에 물론경을 한번씩 읽었으며, 그 중 12명이 세 번을 읽었습니다. 킴볼 자매님은 “나는 그와 같은 성과를 보고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자매님들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들의 대다수가 나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공부하도록 충고해 주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내게 더 충고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킴볼 자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 킴볼 자매님의 가르침은 방문 교육입니다. “나는 상호부조회 회원이 된 지 50여 년이 됩니다. 그 후 나는 50년 동안 방문 교사로 일하였습니다.” 킴볼 자매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동반자와 친해져서 그와 함께 회원들을 만나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일이 내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떤 자매를 이해하려면, 그 자매의 가정 분위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교육은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고 서로 돕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킴볼 자매님은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 헨리 아이링의 누이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부인이므로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의 개성보다는 그녀의 명성 때문에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을 압니다. 회원들이 때때로 킴볼 자매님에게 예언자와 결혼하신 소감을 물으면, 자매님은 농담삼아 “저는 예언자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환 선교사와 결혼했습니다.”라고 대답하시곤 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형제님은 예언자의 아내와 탐구심과 용기를 가진 발랄한 교사와 결혼했습니다. 개성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 협조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그들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만일 30여 년 전에 그녀의 남편이 총판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녀는 현재와 다름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킴볼 자매님은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결혼 후 현재까지 한결같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와드 서기로서 부름을 받는다 해도 그와같이 헌신하실 것입니다.” 결혼한 지 6주 후에 그분은 스테이크 서기로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는 킴볼 형제님이 대관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맡겨진 막중한 책임입니다. “그분은 현재 우리가 지상에서 의지해야 할 분으로서 신권의 열쇠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많은 결정 사항에 대해 최후로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주님을 제외하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킴볼 자매님은 침착하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킴볼 자매님은 그들의 가정을 “완전히 평온하게” 만듦으로써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덜어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분에게서 가정의 일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그분이 가정을 즐거운 안식처로 여기실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분을 대하기가 송구스러워집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시하는 킴볼 자매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널리 알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능

한 한 킴볼 자매님은 공식상의 회견을 피하고 남편과 자신을 위해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기를 더 원합니다.

두 분이 갖는 전형적인 가정의 밤은 안락 의자에 앉아 함께 경전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님의 음성을 아끼기 위해 킴볼 자매님이 큰 음성으로 읽으시다가 토론을 해야 하거나 밑줄을 그을 만한 구절이 있으면 읽으시던 것을 멈추시고 두 분은 토론을 하신 다음 밑줄을 그으시기도 합니다. 두 분은 가끔 “예외로” 어떤 구절에 밑줄을 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분은 함께 살기에 참 좋은 분이지요” 킴볼 자매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확고한 신앙심과 절대적인 충성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킴볼 자매님은 두 분의 사고 방식의 차이점이 오랫동안 나누어 온 그들의 우정을 더욱 두텁게 해 주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은 내가 의문이 생겨 모호한 데까지 깊이 파고 들어 캐고 물으면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상대방의 개성을 온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고결한 성품에 대한 신뢰는 다른 사람의 의로움에 대한 완전한 확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킴볼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일을 결정해야만 할 때에는 완전히 의견이 일치합니다. 우리는 둘 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 인류의 죄를 위해 겪으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나는 때때로 실제로 그런 사실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가집니다만 그분은 그런 사실을 확실히 알아 낼 때까지 즐겁게 기다리십니다. 일례로 정치 등의 일에 복음을 적용하는 경우에 우리의 의견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견에 대립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상대방을 확신시키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엡4:13)을 발견합니다.

상호 신뢰와 존경이 결혼 초부터 두 분의 결혼 생활의 특징이 되어왔습니다. 킴볼 자매님은 탐구심이 많았기 때문에 클럽, 사회 단체, 세미나,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그녀는 “나는 우리가 여행을 자주 한 최근 2년 간을 제외하고는 결혼 후 매년 그러한 활동에 참석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킴볼 자매님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가정에서 자극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킴볼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흥미없는 따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상 생활의 목표를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정은 가장 큰 학교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두 배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자녀와 유대를 맺는 방법을 알고, 훌륭한 시어머니와 할머니가 되는 법을 배우는 일에 끝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로 점진된 킴볼 자매님의 생애는 그녀로 하여금 열의를 갖게 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킴볼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책임이 그들을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길입니다. 모든 여성은 사회의 복지, 가정, 교회 봉사를 통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 나가야 합니다. 생은 기쁨으로 가득찬 것입니다. 나는 이 생애에서 할 일을 다 못할까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권태로운 생을 살아 나가는 여성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들은 선교사로 나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김 불 대관장님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여러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볼 때 감명을 받습니다. 교회에는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필요한 일이면 무엇이든 행하려 하는, 다시 말해서 헌신하고 지도자들의 권고에 따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컨대, 얼마 전에 나는 일본계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물론으로 행동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느 말일성도 형제를 사귀어 온 후 선교사와 공부하고 나서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한 부름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관리 감독단 제1보좌

그의 부모님은 그가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아들이 교회에 속하도록 허락한다면 그는 곧 교회에 환멸을 느끼고 제정신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들이 침례받는 것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교회에 속한 지 얼마 후 그 청년은 부모님에게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며, 그분들이 그를 도와 줄 수 있는지를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거절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도와 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가 학업을 중지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는 돈을 저축했으며 몇몇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내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가 몇 달 동안 선교 지역에서 지낸 후, 그의 부모님은 한국에 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할 거야. 우리는 그동안 참아왔단다.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이제 네가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학업을 계속해야지. 안 그래?” 부모님은 아들에게 함께 집에 돌아 가자고 설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 참되고 올바른 일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대학에 드는 학비를 전담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교사의 책임을 그만 둘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의사가 되는 것보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선교사의 임무를 그만 두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부자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의 부모님이 그와의 부자 관계를 끊는 데 대해서 내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를 마치고 귀환했을 때,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학교에 복교했습니다. 그리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언자의 충고와 권고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는 회원입니다. 교회 회원이 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구세주를 위해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일이면 무엇이든 다 행하며, 부름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결심한 회원들이나,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회원들이나 아직도 그러한 결심을 갖지 않은 회원들에게 내가 총관리 역원으로서

선교 사업에 종사하는 성도들과 사귀어 오면서 얻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관리 감독단으로 봉사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지만 선교 지역에 나가서 자신의 시간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젊은 남녀 선교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험보다 더 많이 영적인 성장과 즐거움을 갖게 해 주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나는 지상의 어떤 사람들이 받는 축복도 선교사들이 받는 축복에 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은 주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의 다른 자녀들을 위해 행하지 않는 일을 선교사들을 위해 특별히 행합니다. 의로운 선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일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사업중 가장 보람있는 일의 하나입니다.

몇 년 전 나는 미국에 있는 어느 와드 감독이었습니다. 우리 와드에는 말일성도로서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원이 아닌 십대 소녀 한 명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커머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상대방이 말하는 말하는 입술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소녀 앞에서 그녀에게 말한다면, 소녀는 여러분의 입술의 움직임을 보고 말뜻을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심장병도 앓고 있었으며 다른 소녀들과 같이 어떤 운동 경기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소녀 소녀들은 그녀에게 친절히 대했습니다. 그들은 관심과 이해심을 갖고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기를 친절히 대해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모범을 보이는 그들의 태도를 좋아했습니다. 곧 소녀는 선교사들과 복음 공부를 하기 위해 초대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들과 함께 가진 복음 공부 끝났을 때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배운 것을 모두 믿었으며, 그녀는 부모님에게 침례받을 수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에 대해 들었으나 소녀가 믿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소녀가 침례받도록 승낙해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는 이 어린 커머거리 소녀에게 침례를 주려고 침례탕 주위에 모였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 소녀는 교회 회원이 되는 성신의 안수를 받아야

만 했습니다. 장로들은 내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는 데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소녀가 성신의 은사를 부여받고 확인받을 때 장로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녀는 축복하는 사람의 입술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교회 회원으로 확인할 때 장로가 말한 축복의 말씀을 주의깊게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나는 소녀가 확인을 받은 후, 소녀에게 축복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장로가 이야기한 내용을 들었을 때 나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는 그가 내 자신이 거의 믿을 수 없는 축복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그와 같이 축복하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확인과 축복이 끝난 후, 나는 어린 소녀를 감독실로 오게 했습니다. 소녀는 내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내게 준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소녀는 나를 향하여 “피터슨 감독님, 나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소녀는 들을 수 있었으며, 커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녀는 탁구, 소프트볼, 정구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소녀의 심장병이 완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병고침은 장로의 신앙, 간증,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때로 합당한 장로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며, 선교 사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같은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권고대로 선교사가 되어 은천하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들의 생애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요, 특별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하고 중요하며, 필요한 자들입니다.

※ 한국 대회와 필리핀 지역 대회에서 피터슨 감독이 하신 말씀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어머니를 교회에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1월초에 감독으로부터 받은 이 목표는 내게 선교 사업의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감독이 말씀하신 비회원의 어머니는 회원인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나는 그 가정의 가정 복음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동반자와 함께 그 가정을 처음으로 방문할 준비를 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침례에 관한 주제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

만일 당신이 교회에 가입하시려고 결심하신다면

마크 하트



이 우리는 그 집을 방문하여 환영을 받고 집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우리가 방문을 마치고 나오려고 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인은 아직 나를 잘 모른다. 아마 약간 당돌한 느낌을 주는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애.”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매님은 물문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시면서 교회 회원이 되지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인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에 가입하려고 결심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나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난 후 나는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트 형제님, 내가 형제님이 속한 교회에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두 주일 후(2월 방문 전에) 그 부인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비회원과 간증을 나누면서 기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겪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희망을 걸고, 내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교사 한 분을 인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나의 먼 친척되는 자매와 결혼한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절한 대화를 먼저 꺼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모임에서 아래쪽 통로 옆에 자리를 잡아 앉고는 통로 쪽 자리를 하나 남겨 놓았습니다.

“그다음 일은 주님께 달려 있을 뿐이지”라고 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조금 후 그는 내 옆자리에 와 앉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물문이 되지 않고 4년 동안 브리감 영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에 가입하려고 결심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3일 후에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3주 후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나는 침례를 받지 않으려는 비회원인 학생 한 명을 생각했습니다. 수 개월 후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만일 네가 교회에 가입하려고 결심한다면 나는 기꺼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도 또한 회원이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에 가입하려고 결심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란 짧은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기쁨을 내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 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이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 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 : 16)

마크 하트 형제는 어린이용 교육 자료 저자 겸 발행인임. 현재 프레스튼 제8와드 주일학교 교사이며, 프레스튼 아이 다호주 남 스테이크 집행서기임. 로잔 신전에서 의식을 집행하는 일을 맡고 있음.



누구든지 물몬경을 읽고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세리 톰슨 그림

“누가 미국을 발견했습니까?”라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한 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컬럼버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은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대답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진실로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몬경은 이 세상의 어느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요,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교회정사 4: 461)

나는 예언자의 말씀이 진실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소년 시절에 개다이엔톤 도적단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를 느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남부 멕시코의 산 속에는 수없이 많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동굴을 탐험했을 때, 우리는 고대 화살촉과 다른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이상한 그림과 상형 문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도둑의 은신처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소문이 떠돌아다녔으므로 동기를 받은 나는 물몬경에 도둑에 대해서 쓴 것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후 캐시아 아카데미의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몬경이 우리의 신학반 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최근에 나는 그때 물몬경의 각장의 내용을 요약한 노트를 찾아 내었습니다.

그 후 1920~23년 내가 선교 지역에 있었을 때 나는 물몬경을 가까이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물몬경을 즐겨 읽고 가까이 접하게 된 것은 내가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있었던 1929년에서 1941년 사이였습니다.

법과 대학을 마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면서 동시에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나의 부친도 염려했습니다. 나의 부친이 다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묘지를 지나면서, “이곳에 존 브라운이 잠들다. 변호사요 정

나는 소년 시절에 개다이엔튼 도적단 이야
기를 듣고 매우 흥미를 느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남부 멕시코의 산 속에는 수없이 많은 동
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굴을 탐험했을 때, 우
리는 고대 화살촉과 다른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는 이상한 그림과 상형 문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직한 사람으로 일생을 마침"이라고 새겨진 비문을 보고
다음과 같이 덧붙인 어떤 익살군의 말을 나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난 왜 사람들이 한 무덤에 세 명을 매장했
는지 모르겠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물몬경에 관해 하신 말씀을 기
억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여 그대로 실행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나는 규칙적으로 동료들보다 30분 먼저 법률 사무실에
도착하여, 문을 잠그고는 기도드리 후 매일 아침 30분간
경전을 읽었습니다. 12년 동안에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서
나는 물몬경을 아홉 번 읽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물몬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물몬경은
내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범에 대
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니파이가 보여 준 신앙과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니파이의 부친인 리하이가 니파이와 그의 형
들에게 "주께서 내게 명하사 너와 너의 형들을 레이벤의
집에 보내어 기록을 찾아 오게 하라 하셨느니라"고 말했
을 때 그의 형들은 불평했으나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
나이다."(니파이일서 3:4,7)

니파이와 그의 형들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레이벤의
집에 들어 가 낚시판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레이벤이 뽑혔습니다.
레이벤이 들어 가 이야기하였으나 낚시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돌아와 낚시판을 갖
지 않은 채 아버지에게 돌아가자고 설득시켰습니다. 그
러나 니파이만은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살아 계시고 우
리가 살아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이루
기까지는 광야에 계신 부친께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
니"(니파이일서 3:10-11, 15)

그가 그때 형제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상속의 땅으로
가서 금은보화를 가져 그것으로 낚시판을 바꾸려 했습니
다. 그러나 레이벤은 낚시판과 바꾸는 것을 거절했습니
다. 드디어 그는 그들이 가진 금은보화를 빼앗아 버렸으
며, 그들은 도망하여 생명을 건졌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도망하여온 레이벤과 레뮤
엘은 노하여 니파이와 샘을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그 후
니파이는 혼자 성으로 들어가 주님께 낚시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니파이의 신앙의 훌륭한 점은 그 다음에 생긴 많은 일
에 당면하였을 때 잘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명을 받아
니파이가 배를 지을 때, 그의 형들은 그를 조롱했고, 반
대했으며,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
다. 그러나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저들에게
이르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만사를 다 행하라고 이
르신 것이라면 내가 능히 이를 수 있으리라. 또 하나님
께서 내게 물을 명하여 육지가 되게 하라고 명하신다면
그도 역시 내가 말하는 대로 되거지리라."(니파이일서
17:50)

그는 배를 훌륭하게 만들어 불평하던 형들을 배에 태
워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이외에 물몬경에서 배운 큰 교훈은 인간이 죄를 용서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설
명은 내가 모사이야서 4장 1절을 읽고 곰곰이 생각했을
때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의 하나가 바로 모사이야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전한 작별의 말씀입니다.

4장의 처음 3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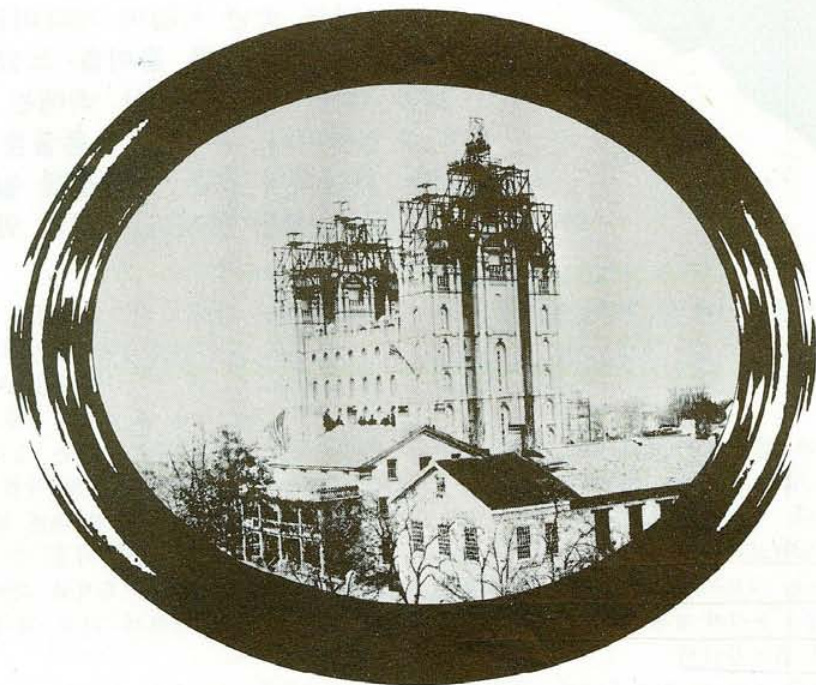
"베냐민 왕이 주의 천사가 전해 준 말을 마치고 나서
눈을 들어 무리를 둘러보니, 보라 저들은 주님이 저들
에게 임하실까 두려워하여 모두 땅에 엎드려졌으며,

"저들은 스스로가 육욕의 상태에 있으며 땅의 티끌만
도 못한 존재임을 느껴 모두 한 소리로 크게 외쳐 이르
기를, 오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
을 미치사 우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히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장차 인간에게
오실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과 그안에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오니다.

"저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매 주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
신지라, 저들이 기쁨으로 찬만해지며, 죄사함을 받으며
양심에 평안을 얻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
앙으로 인함이라." (모사이야서 4:1-3)

누구든지 물몬경을 읽고 책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면 영
생에 이르는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소년 시절에 개다이엔튼 도적단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를 느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남부 멕시코의
산 속에는 수없이 많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동굴을 탐험했을 때 우리는 고대 화살촉과 다른 유물들
을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이상한 그림과 상형 문자가 그
려져 있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신전이 완성되기 전에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제7대 대관장

내가 21세가 채 되지 않았을 때 젊은 친구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세인트 조지 신전에서 신전 결혼을 갖기 위해 유타주 북쪽에 있는 유타군에서 남쪽에 있는 세인트 조지까지 고생을 하면서 여행한 것을 생이 다할 때까지 감사할 것입니다. 그 때는 아직 유타군의 남쪽 철로가 놓이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마차를 타고 그곳까지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여도 거칠은 길을 따라 먼 여행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솔트레이크 시에서 유타군까지의 거리는 74킬로미터였으며 마차를 타고 가면 유타군에서 세인트 조지까지의 거리는 445킬로미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 세인트 조지까지 가는 것은 필요없는 헛수고라고 내게 충고했습니다. 그 이유로 그들은 내가 스테이크 부장이나 감독의 주례로 결혼을 할 수 있고, 솔트레이크 신전이 곧 완성되면 아내와 자녀와 함께 가서 결혼 인봉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들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인봉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왜 나는 그러한 충고를 듣지 않았을까요? 이는 내가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새로운 생을 시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후 나는 좀 편리한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신전 결혼을 할 것을 결심하였기 때문에 훨씬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청녀 상호향상회 본부 임원들이 시온의 스테이크로 여행하면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신전에서 결혼하여 합당한 방법으로 생활을 시작할 것을 권했습니다.

내가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는데 내 딸이 본부 청녀 책임자로서 그 집회에 참석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약의 자녀로서 태어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의 신전에서 합당하게 결혼하여 인봉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을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의 어머니인 내 아내가 솔트레이크 신전이 완성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혼하기 위해서 세인트 조지 신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 친구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신전 결혼을 하러 간 것을 얼마나 감사히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합당하게 새 생활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하는 영감과 결심을 가진 것을 매우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결심했을까요? 그것은 나의 어머니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가치를 내게 가르쳐 주었고, 합당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것을 권하였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일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합당한 젊은 말인성도들은 새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주님의 집에 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성전인 주님의 집에서 맺은 결혼 서약 곧 현세와 영원을 위해 맺은 성스러운 결혼 성약은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하고 행복을 깨뜨리려고 하는 생의 온갖 유혹을 물리쳐 줍니다.



가장 귀한 경전

모린 비쳐

매리 엘리자베드는 물몬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는 작은 지부를 관리하는 모리 형제는 선교사들이 금판에 새겨진 성스러운 기록에 이야기한 것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예언자에 의해 금판이 번역된 경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매리 엘리자베드는 그 책을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책을 무척 읽고 싶어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열 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책을 읽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150년 전인 그 당시만 하여도 많은 집에서 갖고 있었던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에 회복된 복음

을 믿는 사람의 수요가 적어서 그들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모리 형제도 새로 개종한 분이었는데 처음으로 전도하러 왔던 선교사들이 돌아 간 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후 금판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 본 선교사인 존 휘트머가 왔습니다. 그는 물몬경 한 권을 갖고 왔습니다.

매리 엘리자베드는 그 선교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일찍 들었습니다. 그 지부에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모리 형제의 집에서 그날 저녁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리 엘리자베드는 물몬경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바라며 그날 오후 모리 형제의 집 때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휘트머 형제가 그곳에 없는 것을 알고는 실망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몬경 한 권을 두고 갔습니다.

“이 책을 보고 싶지?” 모리 형제가 물었습니다.

“예 무척 보고 싶어요.” 매리 엘리자베드는 대답했습니다.

모리 형제는 책을 갖고 나와 엘리자베드의 손 위에 그 책을 놓았습니다.

매리 엘리자베드는 이 귀중한 책을 받아 쥐고는 그 책을 몹시 읽고 싶어하였기 때문에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리, 많은 형제들도 아직 이 책을 읽지 못했고 나도 역시 완전히 읽지 못했단다.”라고 모리 형제는 책을 빨리 달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동안 제



가 읽을 수 없을까요?’

“교회 집회가 끝나면 즉시 돌려 드릴게요.” 매리 엘리자베드는 애원했습니다.

모리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는데, 그때는 너무 캄캄하여 책을 돌려 주러 오기 어려울텐데.”

그러나 모리 형제는 매리 엘리자베드의 애원하는 듯한 눈동자를 보았을 때 그녀의 간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리 내일 아침 식사 전에 이 책을 가져 오겠다면 그때까지 내가 보게 해 주마.” 그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진귀한 보물을 소유하여 더할 나위없이 행복을 느낀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매리 엘리자베드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숨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저씨와 아주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귀한 경전을 가져 왔어요!” 그녀의 외침으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매리 엘리자베드는 모리 형제가 아직 읽지 않은 책을 주체넘게 어거지를 써서 빌려왔다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책을 몇 시간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주머니와 아저씨도 매리 엘리자베드처럼 그 책의 내용을 몹시 알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차례로 성스러운 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낮이 지나 밤이 되도록 그들은 계속 읽었습니다. 촛불을 켜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이 깊도록 읽었습니다. 그들은 그 책을 읽는 것을 그만두고 잠자리에 가기 싫었습니다. 매리 엘리자베드는 간이 침대 위에 누워서도 “나 니파이는 훌륭한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라고 매리 엘리자베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니파이와 그의 가족의 역사에 관해 읽고 들은 것을 설명하며 그 다음 구절을 암기했습니다.

고 시작되는 첫구절의 아름다운 말을 잠들기 전까지 생각하였습니다.

아침 햇빛으로 잠을 깨 엘리자베드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때까지 옛날에 미대륙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녀가 책을 갖고 모리 형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 전에” 돌려 주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리 형제님의 가족은 그때보다 약간 늦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매리 엘리자베드는 모리 형제에게 책을 돌려 드렸습니다. “아마 많이 읽지 못했을 거야. 그렇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밤 그들이 읽은 부분을 표시해 둔 서표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책의 구절 하나를 말해 보렴. 아마 말할 수 없을걸.” 그는 그녀가 너무 빨리 읽어서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라고 매리 엘리자베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니파이와 그의 가족의 역사에 관해 읽고 들은 것을 설명하며 그 다음 구절을 암기했습니다.

모리 형제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녀를 바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몇 구절을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그 책을 매우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리, 이 책을 집에 가져가서 마저 읽어라. 나는 기다릴 수 있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책을 완전히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리 엘리자베드는 며칠 후에 마지막 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커틀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오셨을 때 매리 엘리자베드의 삼촌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매리 엘리자베드는 집에 없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표지가 싸여진 물몬경을 보고 물었습니다. “난 모리 형제님에게 저 책을 보냈습니다.”라고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저 책이 어떻게 여기에 와 있지요?” 매리 엘리자베드의 삼촌은 그의 조카가 모리 형제를 설득하여 그 책을 빌리게 된 경위를 말했습니다. “그 소녀를 만나고 싶은데요”하고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매리 엘리자베드를 부르러 왔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자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언자의 눈동자가 참으로 푸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습니다. 소녀는 예언자가 그녀의 마음속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예언자는 조용히, 깊이 생각하면서 매리 엘리자베드에게 다가가면서 그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습니다. 최초로 그녀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방문은 곧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떠나기 전에 매리 엘리자베드에게 물몬경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녀는 귀중한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녀는 처음 읽었을 때의 감격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금판을 번역하려고 물몬경 한 권을 주셨으며 자기에게 축복을 주신 예언자를 생각했습니다.





주바는 왼쪽 발이 굽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염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형인 물로가 시골에 있는 학교에 갈 준비를 했을 때 주바는 그의 형과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아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주바, 염소를 지킬 사람이 있어야겠다”라고 물로가 가족 바지를 개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주바는 더 커보이도록 다리를 펴보이면서 말했습니다. “난 염소를 따라 다닐 수 있거든.”

잠시 동안 그의 아버지도, 형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주바는 그들의 시선이 자기

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주바, 네가 따라 다닐 수 있는 줄 알아. 물론 할 수 있지. 그러나 네가 염소들처럼 빨리 뛸 수 있겠니? 너는 시간이 되기 전에 염소들을 산 아래로 내려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니?”

“넌 내가 처음 염소를 지키러 갔을 때보다 작아”라고 물로가 말했습니다.

“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자신이 있던 말이야”하고 주바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나 주바는 물로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그의 굽어 있는 발을 고쳐 그의 형처럼 염소를 지킬 수 있기를 꿈꾸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오랫동안 웅크려서 그의 집에서 염소를 치는 사람으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 물로가 했고, 지금 주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바는 절름발이로 걷는 데 불편을 느꼈지만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물로는 그의 가방을 단단하게 꾸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 소년들은 내가 떠나는 것을 안다. 그들은 웅크려서 나에게 일자리를 부탁할 거야. 난 너를 그

분에게 추천했지. 그러나 네가 직접 말끔 드러라.”

주바는 절름거리지 않으면서 언덕 위에 있는 큰 집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바로 물로가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마을의 두 소년이 그 보다 먼저 와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바, 네가 왔구나. 난 네가 올 것이라고 소년들에게 이야기했단다.” 웅크려서 주바를 보고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주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바의 능력을 의심하는 표정으로 주바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바의 걸음은 매우 느린데요”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염소는 산에서 바람처럼 빨리 다닌답니다.” 다른 소년이 말했습니다.

웅크려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 말이 옳아. 그러나 이번은 주바의 차례인 걸. 주바에게 그 일을 맡겨야겠어”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바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주바, 우리 가족은 그 일을 잘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해”



산 꼭대기

헤이즐 엠 톰슨 글



하고는 별로 말씀을 하지 않았읍니다.

긴 여름 동안 주바는 염소를 따라다녔읍니다. 그는 염소 떼의 앞장에 서서 달려야 할 때 매우 피곤하였읍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나 산꼭대기에 있는 초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다리는 아팠읍니다.

주바는 산 중턱 낮은 지대에 풀이 좀 있는 곳을 지날 때 잠시 동안 쉬고 싶었을 때도 많았읍니다. 왜 염소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읍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 필요는 없읍니다. 염소들은 먹을 풀을 찾을 것입니니다. 저녁에 그는 윈클러씨의 외양간으로 염소 떼가 돌아갈 때까지 먼거리를 걸어야만 했읍니다.

그때 주바는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곤 했읍니다. 그는 염소들을 가장 좋은 풀이 자라고 있는 매우 높은 초원을 두루 돌아 다니며 먹었던 것이었읍니다. 그곳에서 염소들은 긴 여름동안 먹고 싶은 만큼 많은 풀을 먹었읍니다.

가을이 와서 산마루에 첫 눈이 덮였읍니다. 염소들은 윈클러씨의 외양간에서 겨울을 위해 쌓아 둔 풀을 먹으면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있었읍니다.

어느 날 윈클러씨가 주바와 그의 아버

지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했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윈클러씨.” 주바의 아버지는 인사를 하고는 그의 집에서 가장 좋은 의자를 내 놓으며 윈클러씨에게 앉으라고 권했읍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윈클러씨가 말했읍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지만 주바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염소들은 많은 것을 팔 수 있도록 살찌고 있습니다. 매일 주바는 산꼭대기에 가서 가장 좋은 풀을 염소들에게 먹였읍니다. 그는 내게 큰 도움을 주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를 돕고 싶습니다.”

주바는 윈클러씨를 쳐다 보았읍니다. 윈클러씨가 말한 의도는 무엇이었던습니까? 주바에게는 물어보아야 할 염소도 없었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주바를 도울 수 있었을까요?

“윈클러씨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시내에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나는 그가 병을 잘 고치는 유명한 의사라고 들었읍니다. 나는 주바를 그 병원에 보내어 치료받게 하고 싶습니다.”

주바의 가슴은 뛰었읍니다. 그것이 가

능한지 그는 의심했읍니다. “나는 염소를 따라 다닐 수 있을까? 언젠가 나도 다른 소년들과 같이 뛰어 놀 수 있을까?”라고 주바는 생각하곤 했던 것이었읍니다.

윈클러씨가 돌아 간 후 주바의 아버지는 주바를 돌아보았읍니다.

“주바, 넌 오늘 저녁 내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어”라고 아버지가 말했읍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아니?”

주바는 잠시 생각했읍니다. “윈클러씨가 나를 유명한 의사에게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죠?”라고 그는 물었읍니다.

“그것도 이유의 하나지. 그것은 내게 기쁨을 안겨 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야”라고 아버지는 대답했읍니다.

“추운 겨울에 모든 염소가 좋고 따뜻한 털을 가져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팔로 소년의 어깨를 껴안았읍니다. 주바는 아픈 발을 내려다 보며, 언젠가 그 발이 낫게 될 때가 있으리라 하는 희망을 가졌읍니다.

“얘야, 염소뿐만 아니라 네 발이 다시 낫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도 아니란다. 가장 내가 기쁜 것은 네가 산꼭대기까지 올라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아버지는 말했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대 땅 산 중턱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맞은 편 산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블레셋의 장군 한 사람이 나타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는 골리앗이라 하는 거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키 “여섯 규빗 한뼘”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거의 3미터나 되는 키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놋투구를 썼으며 몸과 다리에는 무거운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또한 한 병사가 그의 주인의 무거운 방패를 들고 그의 앞으로 나갔습니다.

베틀체 같은 큰 창을 든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고함을 이렇게 질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은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그의 군대는 이 거인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골리앗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사십 일 동안이나 조석으로 싸움을 도전했습니다.

이 때, 베들레헴 유대 마을에는 아들 여덟을 둔 이새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 사울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움에 나갔으나 막내 아들인 다윗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직 싸움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이새는 양치는 다윗을 불러 볍은 곡식 한 에바와 떡 열 덩어리를 주며 싸움터에 있는 형들에게 전해 주고 그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일렀습니다. 다윗은 그 형들의 천부장에게 줄 치즈 열 덩이도 갖고 갔습니다.

다윗이 진영에 도착하여 그의 형들과 인사를 나누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나타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바라보며 예의 싸움을 돌구는 고함을 질렀다.

거인이 가까이 오자, 사울의 군사들은 겁이 나서 달아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기가 없음을 보고 안타까와 하면서 도망가는 병사에게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판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거인을 두려워하느냐고 다윗의 질문은 어린 목자를 부른 사울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골리앗)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는 주님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양을 잘 지켰으며, 양을 잡아간 사자와 곰을 죽이고, 잡혀간 양을 빼앗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이 소년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자 사울은,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놋투구를 다윗의 머리 위에 씌우고 무거운 갑옷은 몸에 입히고 칼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는 익숙하지 못하여 갑옷을 벗어 버리고 짐을 돌려 준 다음,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개울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를 드린 후 등글고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주었습니다. 돌을 목자의 배구(가죽 주머니)에 넣고 물매와 막대를 든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골리앗도 방패를 든 자를 앞세우고 싸움에 맞서려 나

“여호와께서 나 내시리이다”

(사무엘상 17장)



왔습니다. 그러나 대적해 싸우려 나온 목동인 다윗을 본 골리앗은 굴욕을 느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고함을 쳤습니다. 골리앗은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놀라거나 겁내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은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제신 줄 알게 하겠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면서 자루 속에서 돌을 꺼내어 물매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있는 힘을 다하여 거인의 머리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그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날아온 돌에 맞아 기절하여 잠시 동안 꿈틀거리다가 그의 얼굴을 땅에 박고 죽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다윗은 약속한 대로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본 사람들은 그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를 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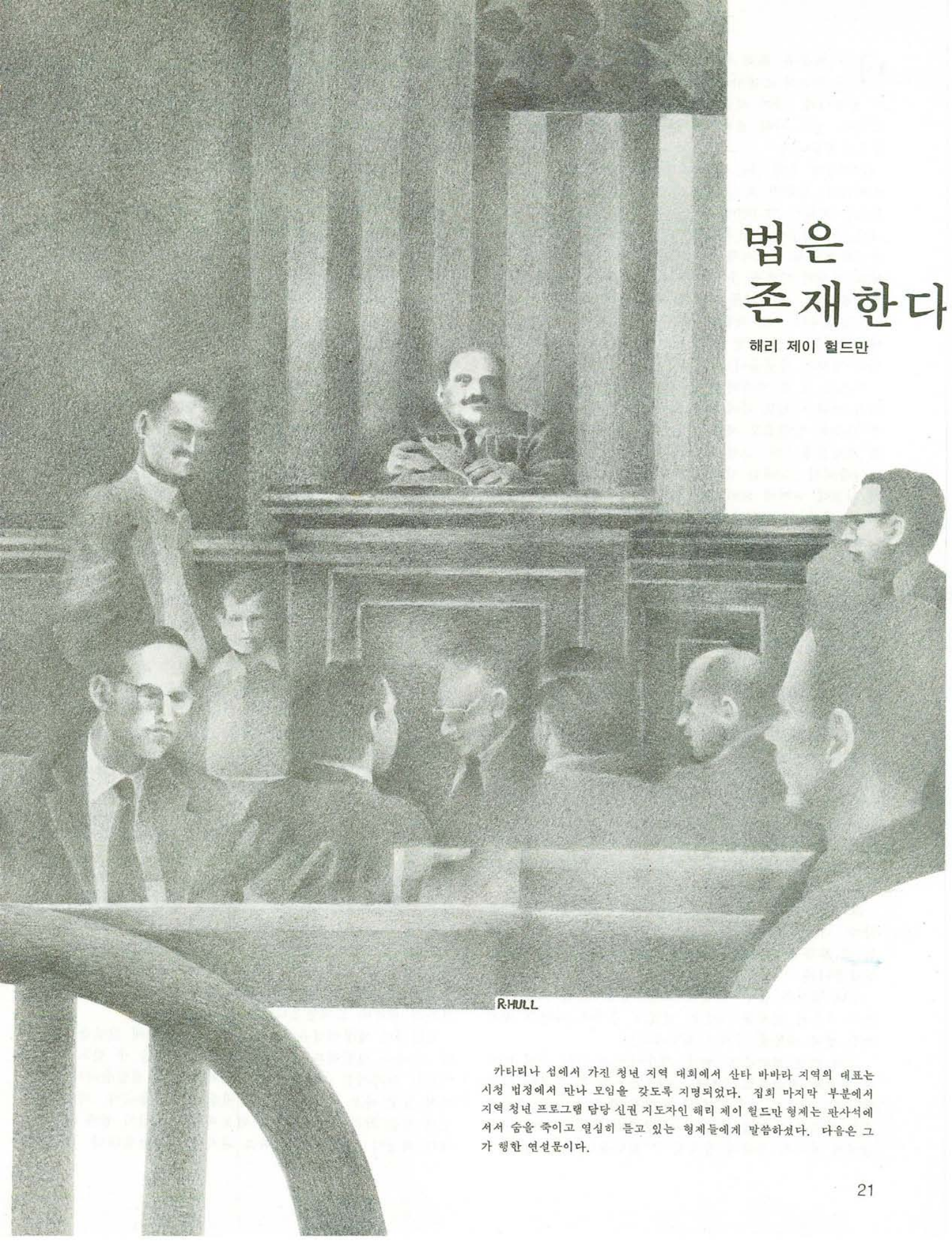
숨은 그림 찾기

개구리, 거북이, 나비, 달팽이, 개미를 찾아 보세요. 그리고 예쁘게 색칠하세요.



법은 존재한다

해리 제이 헐드만



RHULL

카타리나 섬에서 가진 청년 지역 대회에서 산타 바바라 지역의 대표는 시청 법정에서 만나 모임을 갖도록 지명되었다. 집회 마지막 부분에서 지역 청년 프로그램 담당 신권 지도자인 해리 제이 헐드만 형제는 판사석에서 숨을 죽이고 열심히 듣고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가 행한 연설문이다.

나의 이름은 해리 제이 헐드만입니다. 나는 현재 산타 바바라 스테이크의 산타 바바라 와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나는 나의 생활에서 일어난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초에 나는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이스트 스테이크 산하의 로즈미드 와드의 감독이었습니다. 그 와드는 회원이 약 500명 정도되는 보통 규모의 와드였습니다. 이 와드에는 소책자를 들고 거리를 오르내리면서 봉사하는 복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들이 어느 사람의 대문을 두드리자 그 집에서는 그들을 맞아 들였습니다. 선교사들은 그에게 간단한 소개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바브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브는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에게 다시 찾아와 달라고 청했습니다.

바브는 그 후 계속해서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복음 공부를 마친 후 바브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전혀 흥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오래 전부터 계속 술만 마셨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사랑도 이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아내로부터의 애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며 그가 교회에 속하리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그가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술을 끊을 것이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교회에 가고 싶으면 혼자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전 흥미 없어요,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은 나 자신과 내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일 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없어요.” 바브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침례 받기 전에 갖는 집회에서 약속한 대로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놀라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컸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아내는 남편의 개심의 열매를 그의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태도를 부드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곧 아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일 년 동안에 바브는 교회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나는 그를 와드 소년대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는 이 부름을 받아들였고 성실하게 직분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년 동안의 음주 때문에 그는 취중 운전 교통 사고 전과 기록의 전적을 가지고 있었고 음주에 관련된 좋지 못한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운전 면허증은 결국 압수되었고 그의 운전 면허는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운전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족을 위해 운전을 했으며 그는 양심적으로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집회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걸어서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는 생산 공장 섭외원으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은 대우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처럼 남의 차를 합승할 것을 기대하고 첫출근 날 아침 거리에 나가 손을 들었으나 합승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운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이고 절서있게 잘 운전을 했는데 조그마한 교통 위반—나의 생각으로는 차선 위반이나 그와 비슷한 위반—을 하여 교통 순경에게 잡혔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은 단번에 탄로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날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감독님,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와드 소년단 지도자 직을 해임해 주셔야 되겠고, 와드 교사의 부름도 해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교회에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 뿐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이야기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바브가 심각한 사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무슨 일인지 다구쳐 물어 보았지만 그는 좀처럼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 의논하기조차도 원치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교통 위반으로 걸렸다고 간단히 말하면서 과거 그가 취중에 운전을 하다가 저질러진 많은 사고의 전과 때문에 법정에 소환되면 틀림없이 교도소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감독님은 죄수를 와드 소년단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원치 않겠지요. 그리고 교회는 저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와의 관계를 끊고 부름을 수행하는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저를 혼자 내버려 두고 제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저는 저의 길을 다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교통 사고가 일어난 장소나 법정 출두 날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색 작전을 편 결과로 그가 출두하게 될 법정과 그의 사고의 경중성, 그리고 출두 날짜 등을 알아 내었습니다. 나는 바쁜 일과를 다시 조정하여 그날 법정에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바브는 내가 법정에 나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그의 아내가 알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하튼 그 날이 와서 그의 아내와 나는 같은 시간에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전형적인 법정이었습니 다. 출입구가 뒷편에 있었습니 다. 실내는 방청객과 증인들과 연고자가 앉을 수 있도록 극장의 좌석처럼 네 다섯 줄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앞줄 바로 앞에는 철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철책 안은 약간 넓은 곳으로 변호사와 피고인이 앉을 몇 개의 책상이 있었고 그 너머로 판사석이 있었습니다. 판

사석 오른쪽에는 법정 서기가 있었고 왼쪽에는 반대 심문을 받는 사람의 좌석이 놓여 있었으며 그 너머로 배심원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걸어 들어가 앞에서 오른쪽 둘째 줄에 앉았습니다. 판사석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왼쪽 건너 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앉은 곳과 판사석과의 거리가 20미터 정도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인이 하나 둘 차례로 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호를 하고 판사는 유죄나 무죄냐를 판결하고 형기를 언도하거나 벌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마침내 나의 친구 바브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가 들어왔는데 그의 손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의거한 이 사람의 범죄 기록 문서 한 뭉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바브가 판사 앞에 서자 판사는 그의 앞에 놓인 기록을 한 페이지씩 수분 동안 훑어 보았습니다. 그는 바브를 쳐다보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피고는 무면허 운전을 유죄

로 생각하는가 무죄로 생각하는가?” “무죄입니다”라고 바브가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건하에 운전을 하게 된 것과 그의 범죄로는 전연 투옥되지 않는 기록을 보고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판사는 몇 마디 날카로운 비난의 말을 내뱉고는 판사봉을 치면서 “군 교도소에서 일년의 징역을 언도한다”하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바브에게 비어 있는 배심원석에 앉아 있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날은 배심원이 참석하지 않아서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는 조그만 그릇에 그의 주머니에 있던 물건은 모두 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군 교도소로 갈 버스를 탈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변호할 목적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준비했고 주님의 사자로서, 이 사람의 감독으로서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와 벌칙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마 147센티를 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앉아 있는 것을 누구도 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여인이었습니다. 이토록 숨도 돌릴 사이 없이 빨리 판결이 내려지고 형이 언도되자 나는 재판석을 멍청히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바브가 걸어 나와 지시된 곳에 앉았을 때 나는 전신이 마비되는 것 같은 것을 느꼈으며 양심의 가책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를 저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생각할 만한 시간적 여유라도 있었더라면 주님께서는 이처럼 나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법정에 들어올 때에는 큰 신념과 확신을 갖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조정했고 열심히 기도했으며 바브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여기고 이 법정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끝나고 그는 선고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때 법정 서기는 다음 피고인의 기록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피고인을 호출하기까지는 12분이 지연되었습니다. 판사는 다음 피고인의 기록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지도 않았고 몸이나 머리를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얼굴 표정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뚜렷한 이유도 없이 판사는 얼굴을 들어 방청석에 앉은 나의 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당히 놀란 나는 “네, 판사님”이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표적도 하지 않은 나에게 이야기하도록 지명한 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처럼 위압감을 느껴 본 적이 일찌기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몸도 잘 가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조금 전 판사님이 판결한 사람을 변호하려고 이 법정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판사는 나의 친구 바브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바브의 이름을 말했을 때 나는 서기가 바브의 기록을 다시 판사의 책상 위에 갖다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소?” 하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두세 번 마른침을 삼켰습니다. 바브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시종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판사님,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감독입니다. 판사님이 방금 유죄 선고를 내려 준 교도소로 가게 된 사람이 저희 교회의 회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한 와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저 사람은 저희 와드의 소년단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폭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번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일년 반 전에 이 사람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입교하고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신앙심이 깊은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칩레를 받은 후 한 방울의 술, 한 가치의 담배, 그리고 한 잔의 커피까지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칩레를 받으면서 이러한 것을 금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소년단 지도자의 부름을 받아들였고 현재 훌륭한 소년단 지도자입니다. 소년단 단원들은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필요합니다. 그는 계속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판사님이 그에게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은 몇 초 안되었지만 나에게서는 상당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판사는 건너편 배심석에 앉아 있는 바브를 건너다 보면서 “이분의 말씀이 사실인가?” 하고 말했습니다. “네, 판사님, 모든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고 바브는 고개를 들어 판사를 쳐다보면서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이분과의 약속을 앞으로 어길 것인가?”하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그분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하고 바브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훌륭한 친구 중에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나와 법과 대학 동기인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학교에 다닐 때 나는 그에게서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가 당신 교회의 관리 역원의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좋은 감정과 물론 교회의 훌륭한 영향력과 피고에게 영향을 준 명백한 사실과, 피고의 약속 등으로 선고를 유예하겠습니다.” 그는 판결봉을 다시 치면서 “선고 유예를 판결합니다. 가도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브가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바브의 개인 소지품을 든 그릇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나는 밖으로 나오는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 팔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능력껏 책임을 수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좋은 신앙을 행할 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그의 노력을 도와 주시고 발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경험에서 얻은 가장 훌륭한 예였습니다. 훌륭한 인품과 개인적인 영향을 지니신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판장의 명성과 침수로써 칩레를 받을 때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켰던 회원의 성실함과 완전히 합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감독, 이 세 힘이 서로 합해져서 한 인간의 행로를 변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함을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심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개인적인 친절로 나의 생활의 매일매일이 축복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과 간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된 개심의 과정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
철심인 제일 평의회

성도들의 간증은 교회의 힘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개종하여 마음을 돌이킨 자들은 교회의 힘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개심은 교회의 생기이며 ‘만일 개심자가 없으면 교회는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엔사인, 1974년 10월호 4페이지)

이 말씀은 개심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게 지워 주신 첫째되는 책임이며 바로 절정의 때에 주님께서 주신 최후의 계명입니다. 그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권고하신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막 16 : 15)

오늘날 교회 회원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교 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종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예언자 요셉 스미스)은 선교사 없이 경륜의 시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모로나이 천사가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로나이 천사는 자신을 훌륭한 선교사로 여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확실히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외에 모든 사람들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선교사를 통해서 회복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의 표준 경전에 설명되어 있는 복음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날에 새롭게 회복된 교리와 사업의 진실함을 증거”해야 합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엔사인 1972년 7월, 28페이지)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수

단은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증이 생기고, 참다운 개심이 일어나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 우리는 우선 하나님과의 참다운 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따라 행동하여야 합니다. 믿음에 행동을 더한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하느니라”(히 11 : 16)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롬 10 : 17)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듯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믿기 전에 우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은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씀이 참되고 그것이 참되기를 원하고 참되다고 믿으며 그리하여 그가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곧 그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며, 그것의 진실함을 알게 되어 개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말씀이 참되어도 그것에 의문을 가지면 그는 진리를 결코 찾을 수 없으며 결코 간증을 얻을 수 없으며, 결코 개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의심하기를 그칠 때까지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신앙은 완전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진다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가지 사물을 완전히 알면 그것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앨 32 : 18 참조)

신앙은 그가 완벽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참되다고 알고 있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구도자에게 힘이 됩니다. 지식은 행동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아는 것이 간증이며 그 간증에 따라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참된 개심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원리에 대하여는 간증을 갖고 마음을 돌이키나 복음의 전반적인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간증을 갖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 베드로는 예수가 구세주이시라는 간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를 배반한 그 날 저녁의 행동은 베드로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일조의 법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어서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금식 헌금을 바치는 것은 거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예언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나 살아 계신 예언자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는 간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따르나 돌아가신 예언자가 부름을 준 감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가 십이사도로 부른 유다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된 개심의 증거는 기쁨 부음 받은 주님의 종이 여러분에게 주는 권고에 비록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개심은 복음의 다섯 번째 원리 곧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개심이란 물몬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니이 31:11) 다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들었나니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며 진실하다.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니이 31:15)

그리고 니파이는 의미깊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로써 내가 아노니, 살아 계신 아버지의 아들의 본을 따라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니이 31:16)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주신 모범의 특성은 순종이었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요 7:16)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요 5:19) 또한 아들은 그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요 4:34 참조)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너희 구속주께서 행할 것을 내게 보이시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내가 이른 대로 행하라. 너희에게 이 일을 행하게 하시며,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을 알게 하시려고 이를 내게 보이셨으니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은 회개와 물의 침례라. 그 후에 불과 성신으로 죄 사람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하여 너희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곧고 좁은 길에 입하나니, 너희는 이제 그 문에 들어섰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계명대로 행하였고, 성신을 받았으니 성신은 너희가 영생의 길로 들어서면 받으리라 하고하신 주의 언약을 이름에 있어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분이라.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가 이 곧고 좁은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전능하신 권세로 너희를 구하시는 이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할 진대,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이 길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은 하늘 아래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한 하나님이시고 끝이 없으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가르침이니라”(니파이서 31:17~21)

니파이의 말씀에서 보면 개심이란 끝없이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모든 사람은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새로 교회에 입교한 회원들은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에서 큰 경험을 가진 이미 입교한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개심의 또 다른 크고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형제와 가족과, 이웃과 문 안에(혹은 밖에) 유하는 객이라도 미워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범에 마음을 돌이켜 개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개심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뿐 아니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가 진실한 개심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동적이거나 입으로만 하는 봉사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을 옆에서 방관만 하고 있으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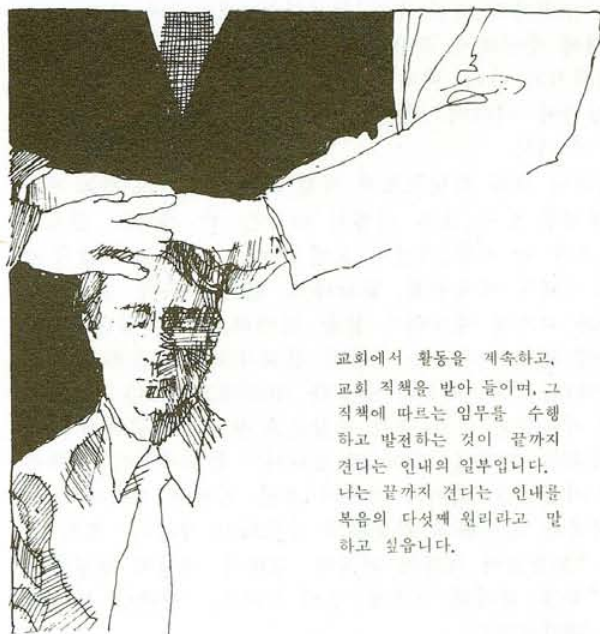
야고보는 뜻 깊은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혈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울 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야고보서 2:15~16)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하는 불확신, 불신의 암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어 그가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와 그의 사랑이 그의 삶을 놀랄 만큼 변화시켰다는 것과 엘마의 말씀에서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으며, 마음으로 놀라운 변화를 느꼈고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야 합니다.”(엘 5:14 참조)

개심자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새롭고도 매우 개인적



교회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교회 직책을 맡아 들이며, 그 직책에 따르는 임무를 수행하고 발전하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일부입니다. 나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복음의 다섯째 원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친구로 생각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또한 행동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심의 깊은 생각까지도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여러분의 행동에는 숨겨진 것이 없이 정직과 정당함과 충성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실한 개심자는 하나님의 최고 피조물, 즉 정직한 인간입니다.

반대로 교회 회원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말하고는 자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고 동료와 신중하게 거례하는 인간과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개심이 필요합니다. (미 6:8 참조) 여러분이 성약의 자녀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6개월 전에 침례받은 사람이거나 관계없이 앞서의 설명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개심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수련 개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엘마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보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을 느껴본 일이 있었으며,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겠다는 느낌을 가져 보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왔느냐? 바로 지금 너희가 죽게 된다면 너희가 더할 나위 없이 겸손했노라고 말할 수 있으며, 너희의 옷이 백성을 죄에서 구하려고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회개 되었노라고 할 수 있겠느냐?”

“보라 너희는 교만을 던져 버렸느냐?...”

“너희 중에 시기심을 버리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형제를 조롱하고 뽐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한 자라. 저에게 화 있을지어다. 때가 가까왔음에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행 5:26~31)

개심이란 이와 같은 행위를 버리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회의 기초입니다. 개심이란 성장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인내의 원리까지도 포함합니다. 회개하고 철저히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신앙은 복음의 힘입니다. 개심이란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성급하고 무절제하고 불순종하며 반항적인 본연의 인간을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모사 3:19)하는 어린 아이 같은 성도로 변화되는 것이 개심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개심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행하여 지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그와 같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태도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참다운 개심자의 올바른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개심의 과정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잠 23:7)의 말씀

과 일치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질문은 “주여,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나이까”(행 9:5)*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경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실로 개심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개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영혼에서 어떻게 개심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개심의 경험을 얻은 분, 즉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네 가지 근본적인 경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소제의 하나가 또는 결합되어 개심자의 간증이라는 찬을 실처럼 뚫고 지나게 됩니다. 개심자가 깊이 감명을 받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1. 물문경,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개심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나는 물문경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물문경을 진실하다고 믿을 때 여러분은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열국에 친히 나타나신 것을 확신하며, “거룩한 경전(성경)이 참됨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부르시사 옛 세대에 서나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계에 자신의 거룩한 일을 하게”(교성 20:21)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2. 기도, 많은 개심자들 중에는 그들이 다른 교회에 일생 동안 다녔어도 회복된 복음을 듣기 전에는 결코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진지하게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은 복음의 진실함을 알았으며, 그들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3. 선교사, 많은 개심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젊은 남녀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젊은이들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말한 것에 놀랐습니다.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선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외모는 출중하게 눈에 띄지 않았고 그들의 용어와 표현력은 부족하였으며, 그들은 세상적인 큰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무엇인가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나에게 말한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이제는 외인이 아닙니다. 북크래프트사, 1971, 1: viii)

4. 교회 회원, 말일성도들에게 진실한 사랑과 관심을 느낄 때 새롭고 영감에 찬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미 극복하고 일어난 회원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있었던 개심 이야기는 어떻게 이러한 원리가 우리에게 개심의 기적을 날게 할 수 있는가를 알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 해 전 내가 교회로 새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비회원들이 살고 있는 버지니아주, 아링튼에 살았습니다. 내가 그곳에 간 지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이웃으로 두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한 집은 우리 집 바로 위의 집이었고 또한 집은 길 건너편의 집이었습

* 역자주: 성경에는 “What Wilt Than Have me To Do?”의 부분이 빠져 있음.

니다. 나는 그때 미국 농무성에서 일했기 때문에 여행이 매우 잦은 편이었습니다. 나는 시간의 거의 반을 여행으로 보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뒷뜰 건너편 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하고 있었으며, 그 이웃집에서 우리 집의 쇠줄 울타리를 뚫고 출입문을 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매우 친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에게 그것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사실 상 나는 그 사람과 안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사를 드리고자 그의 집을 건너가서 우리집 울타리에 문을 만들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교회에 입교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때때로 받게 되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진정시켜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화를 내서는 안됩니다. 화를 내면 그 사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은유하고 겸허”(교전 38 : 41) 한 표현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이사온 이웃 사람의 이름은 맥코이였습니다. 그는 노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훌륭한 말일성도가 될 만한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직업은 세일즈맨이었는데 그는 훌륭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판매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세일즈맨은 어떠한 물건이라도 사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상품을 팔거나 선전을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라면 다른 상품을 잘 사들이는 구매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 이사온 이 사람은 사교적인 성격이어서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솔직담백함은 일반적으로 정직하다는 것을 말해 주며, 정직은 마음에 간증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와 같은 성품은 아주 좋은 징조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 가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가정을 처음 방문한 후 아내에게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며 교회에 입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는 맥코이씨의 가족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원리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내가 신권회에 참석하려고 집을 나오다가 그가 집 뒷뜰에서 딸기를 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뒷뜰 울타리에 기대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코이씨 아마 그 딸기는 모두 말라죽을 걸요” 그는 깜짝 놀라면서 왜 말라 죽느냐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그 딸기를 심으니까요, 설마 안식일에 심은 딸기가 잘 자라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겠지요?”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맥코이씨는 엉뚱한 이야기에 크게 웃었지만 딸기는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한 포기도 없이 죽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맥코이씨에게 딸기가 잘 자라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두 죽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것 기억하오? 딸기는 다 죽을 것이라고 한 말 말입니다. 안식일에 딸기를 심고는 잘 자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했지 않소?”라고 말했습니다.

맥코이씨는 그 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다가 “당신은

농무성에서 일하고 있지요?”하고 물었습니다.

맥코이씨는 그의 딸기가 저주받은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안식일에 씨를 뿌렸어도 잘 재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만은 실패한 것이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딸기 덩굴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딸기 덩굴을 보살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뒤에 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느낌을 강하게 일으켜 주십니다.

얼마 후 맥코이씨는 두 분의 그의 교회 장로를 그의 집에서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교회 장로들이 전에 약속한 헌금을 거두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헌금이나고 물었더니 그는 매년 그가 다니는 교회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그가 약속한 기부금을 바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교회 장로들이 그에게 헌금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 왔는데 맥코이씨는 화가 나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맥코이씨에게 십일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최적의 때가 아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나는 그에게 십일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맥코이씨, 당신은 당신이 버는 돈의 십분의 일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맥코이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당신이 번 돈의 십분의 일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맥코이씨는 “십일조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지만 맥코이씨는 자기는 수입의 십 퍼센트를 오히려 더 쓰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십일조를 바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십일조의 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노라고 후에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맥코이씨에게 십일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 나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어느 유년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반에 열개의 사과를 가져 와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사과 한 개만 자기에게 돌려 주는 어린이에게 사과 열 개를 모두 주겠다고 말했다니 반 어린이가 모두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사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일조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단지 십분의 일만 되돌려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그랜트 대관장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 열 개 중 한 개의 사과를 반만 잘라서 반쪽을 하나님에게 바치면서 반쪽만 잡수시라고 말합니다.” 나는 맥코이씨에게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적합한 예가 될 것 같군요. 당신은 작은 조각만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맥코이씨는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고 난 후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맥코이씨가 십일조의 법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나는 그가 회복된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

니다. 그래서 나는 “맥코이씨, 다음 목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의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저의 집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 청년들은 당신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왔어요. 우리는 지난 6개월간 복음의 표면만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완전한 복음 전체를 들려 줄 것입니다. 부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목요일 저녁 때 우리집에 건너 오세요. 맛있는 음식도 마련해 놓을테니까요.” 나는 그가 그 맛있는 음식을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맥코이씨는 왔습니다. 맥코이씨가 맛있는 음식 때문에 왔는지 아닌지는 모르나 아들은 그는 아내와 네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교사들은 첫째 토론을 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19세의 젊은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능란한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맥코이씨와 그 부인은 이 선교사들로부터 놀랄 만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의 아내도 길 건너편에 살고 있는 새로운 이웃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족이 우리집 거실에서 선교사의 복음 토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임은 6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임을 마치고 두 가족 모두가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맥코이씨와 그의 부인과 두 딸을 침례줄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맥코이씨를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고 교사로 성임하였습니다. 나는 맥코이씨에게 만일 합당하게 생활하면 9개월 후 아들 보브가 침례받을 나이가 되면 직접 침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맥코이씨는 이 말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가족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나는 가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가장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립입니다.

맥코이씨는 열심히 자신이 준비해서 9개월 후 실제로 그의 아들을 침례주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침례준 후 곧 장로로 성임되었으며 스테이크 선교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맥코이씨는 스테이크 선교사의 부름을 받은 첫해에 28명을 침례주었습니다. 그의 동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침례식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침례식같은 모임에서 그의 친구들이 영적인 감화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들을 나에게 “구도자”라고 하면서 소개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구도자의 의미조차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확실히 침례식에서 얻은 느낌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회원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맥코이씨는 계속 친구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15년 전 그와 그의 가족이 침례를 받은 후 그는 혼자서 112명을 침례주어 입교시켰습니다. 그는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훌륭한 가족이 집을 사려고 그에게 의뢰하면 그는 되도록 그의 와드 지역 내로 입주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는 부동산 거래에서 사람들에게 늘 정직했기 때문에 고객은 모두 그를 신용했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 맥코이씨는 감독을 통하여 와드 신권 정원회의 협조를 얻습니다. 말일성도 이웃이 새로 이사오는 가정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칠십인 정원회에서는 그



곳 주변에 위치한 학교, 시장, 버스 노선,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신문까지도 배달해 주었습니다. 맥코이씨가 새로운 가족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 참석시키는 일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며, 교회에서 그 가족은 새로운 이웃 친구를 맞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 가족은 개심이 낳는 기적을 경험하여 침례를 받게 됩니다.

맥코이씨의 가족과 특히 맥코이씨에게서 일어난 변화는 참으로 놀랍고 흥미있는 변화입니다. 첫째, 맥코이씨의 가족은 예수가 베드로에게 준 것과 똑같은 권능으로 주님의 집 안에서 인봉되어 영원한 가족으로 되었습니다. 지상의 결속 뿐 아니라 하늘 나라에 까지 결속되어 있습니다. 맥코이씨는 예나 마찬가지로 그의 가족을 관리하지만 이제는 격려와 은유함과 친절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그의 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의 두 딸은 모두 신전에서 귀환 선교사와 결혼했습니다. 셋째, 만아들 보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복음 선교사로 선교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둘째 아들 스티브는 곧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다섯째, 맥코이씨는 교회에 입교한 후에 보너스로 다섯째 아이 티나를 얻음으로써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배웠습니다. 여섯째, 맥코이씨는 대제사 신권을 받아 현재 워싱턴 신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맥코이씨는 지난 8년 동안 버지니아 북부 지역에서 신학 연구원 중등부를 가르치면서 수백 명의 청소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덟째, 나는 간증회 시간에서 그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일 년 동안 내는 헌금 약속액보다 더 많은 헌금을 이제는 한 달에 바치게 되었다고 간증하면서, 그때에는 그것마저도 아까워서 약속된 헌금을 건으러 왔던 장로들을 내쫓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때, 그 결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누구라도 관계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이 알릴 수만 있고, 또 그가 그것을 안다면, 그는 곧 실행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분명히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같은 자극을 받았을 때 비슷하게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맥코이씨는 과거의 맥코이씨가 아닙니다.

그는 마음을 돌이켜 개심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끝까지 전지는 인내가 더하여질 때 영생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천직을 끝까지 지탱하는 길은



서울 선교부 부선교부장 박 재 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평신도의 교회입니다. 누구나 신앙에 따라 부름을 받고 주님의 사업을 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이 천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보다 큰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더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신앙 생활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나가는 데는 우리들에게 많은 저해 요소가 함께 따른다는 것을 또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자신이 영경되거나 가시밭 혹은 바위 틈에 떨어진 씨앗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천직의 가치는 생각만 한다고 발견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나는 무엇때문에 왜 이 세상에 보낸 바 되었을까하는 선험적 예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지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단어라기 보다 천국의 어휘입니다. 즉 영적인 통찰력으로 자기의 천국 위치를 발견하는 영적 의지를 바탕으로 한 이해력인 것입니다. 이 예지는 아무리 세상 글을 읽어도 어떠한 대선생에게 물어 보더라도 아무리 심사숙고하더라도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신권의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충실히 실천하는 일에 그 예지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대로 힘을 다하여 할찌어다" (전도서 9장 10절)라는 성서의 교훈이야말로 이 천직을 예지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천직을 이해하는 예지력은 하루 이틀에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그에 대한 영성을 높이는 일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계명을 생활화 하는 데는 골방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겠읍니다. 오늘의 내가 한말, 행위, 생각들이 사랑의 바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처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며 남이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태도에서인가 그 결과 남에게는 실망을 주고 자기는 얼마나 기뻐서 주님의 면전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가하는 대화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화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회개란 신앙 용어는 한낱 전시 효과를 노리는 팽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세상 일에 윤이 나도록 닳아빠져 더욱 세상 지식의 오만성 때문에 어린이와 같은 단순성과 순수한 겸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성찰의 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야만인들은 그것을 돌처럼 취급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가 왕관의 장식품이 되고 그 가치성이 세계 시장을 진동케 했을때 그들은 비로소 그 진가를 알게 되었읍니다.

이탈리아의 사상가이며 소설가인 빠삐니는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태도를 그의 저서 그리스도전(Storia di Cristo 1921)에서

"구세계에서는 완력 만능에 부귀를 얻는 술책과 사람을 압복하는 술책이 가치있는 것으로 귀히 여겨지고 어린이는 불쌍한 작은 벌레와 같은 것이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신세계에 있어서는 두려움 없는 성결과 결백한 사랑이 만능이 되고 어린이는 행복한 시민의 모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이를 향하여 한번이라도 어른과 같이 되라고 하신 일은 결코 없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것은 아주 깊은 뜻은 알 수 없으나 순수하고 겸손한 성품이 되도록 지적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 속의 생각이 깨끗하고 상대방이 신권의 우정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그 태도에서 훈훈한 부드러움이 전해지도록 하는 태도가 우리들의 천직의 영성을 높이고 거룩하게 오래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수성과 겸손의 참 뜻을 발견하고 하늘의 소명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태도는 영생을 얻고 최고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는 다이아몬드의 가치에 비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천직을 귀히 여겨 거기에 주님의 뜻을 가하고 새로 순진함과 신권의 우정 가운데 겸손을 더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도록 받을 수 있는 천직임을 알게 됩니다.

